

전주역 첫마중길 일대 재탄생 신호탄

도시재생사업 최종 선정 정동영-전문가 토론회 개최 총 950억원 동부권 투입



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서울과 전주에 도시재생 전문가들을 초청해 수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전주역을 중심으로 한 나후된 전주 동부권 일대를 혁신할 밑그림을 그려왔다.

정동영 의원은 관계자는 "올해 전주역사 신축과 전주역-첫마중길 도시재생사업, 덕진연못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총 950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나후된 전주역과 첫마중길 일대 개발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주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150억 원과 지자체 분담금 100억 원, 총 250억 원을 투입하여 전주역과 첫마중길 일대에 관광·음식 특화 거점을 조성하고, 첫마중길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하여 전주 동부권 일대 상권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전주시는 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이음센터, 청년문화놀이터, 청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전주역을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며, 상인창업교육과 상생협약 체결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상인과 상생하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전주 한옥마을은 전주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경관, 전주 시민들의 삶과 문화가 어우러진 가장 아름다운 도시재생 사례"라며 "도시재생 사업이 성과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참여와 전문가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전주 시민들의 삶을 바꿀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개최 2017회계연도 결산 등 16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듣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날씨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빵업체의 영업 활용 사례 설명을 듣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3일, 제356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16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라북도교육청의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과 전라북도교육청의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라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28건(조례안 8, 예·결산안 4, 동의안 15, 기타의안 1)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은 최영심(비례), 이정린(남원1), 김명지(전주8), 문승우(군산4), 김종식(군산2), 김기영(익산3) 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 할 예정이다. /김진성기자

화폐발행잔액 증가, 물가폭발 위험성 우려

유성열, 금리동결 유감 표해 향후 시장 부정적 여파 경고



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의 과도한 유동성이 조정되지 않아 부동산 가격 폭등·물가 상승 등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일례로 화폐발행잔액의 급격한 증가를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화폐발행잔액은 지난 이명박 정권부터 올해 상반기 말까지 10년 반동안에 무려 3.75배로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상GDP가 1.66배로 늘어난 것에 비해 대단히 크게 증가한 것이다. 비율로 환산해보아도 동기간 화폐발행잔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2.7%로 경상GDP 연평균 증가율 5.2%보다 2.4배나 높은 수치이다. 다시 말해 우리 경제는 누적된 화폐발행잔액으로 인해 물가폭발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는 화폐의 증가 발행에 따른 물가상승과 정책적인 임금 상승이 악순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번 금리동결 결정을 비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홍영표, 정기국회 과제 키워드는?

일자리와 민생경제 적폐청산·한반도 평화



홍영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일자리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 ▲정의로운 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적폐청산 관련 법안 처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정기국회 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예산군 모 리조트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기초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는 집권 2년 차 성과를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정기국회다. 2기 과제와 개혁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한 입법과 예산과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그 성과에 따라 국정 운영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정 반대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권의 비판을 받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이라며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 확대에 대한 우려에는 "재정 확대는 세금을 퍼붓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 하더라도 부족할 때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년에 유례없는 재정확대를 실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에 관해서는 "일부에서 자영업이 어려운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단순 비판은 도저히 못 받 아들인다"며 "그것 보다 큰 구조적인 문제가 상가 임대료 문제다. 이런 문제를 시간 끌지 않고 빨리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도 강조했다. 그는 8월 국회에서 중점을 뒀던 것은 혁신성장 관련된 법, (어떻게 하면) 빠르게 육성할 수 있는냐"라며 "공정경제에 필요한 법안은 집중 소송제 관련 법안이다. 정기국회에서 총력을 다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적폐청산 관련 법안으로 국가정보원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꼽았다. 그는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적폐청산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대적, 역사적 과제"라며 "다른 문제에서 이견이 있어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야당과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정청 공조 체제 구축도 주장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청와대나 정부가 발표하는 자리에 당이 들러리 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자유한국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황영철 의원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황영철 의원이 지난 19대 의원 시절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

러나 기소 후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700만원을 구형했다. 황 의원은 김모(56)씨가 보좌진 등 의원실 식구들로부터 월급 2억8000여 만원을 반납받아 흥천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데 관여한 것은 물론 290여만원의 기부와 관련하여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 전 비서는 구속됐고, 관련자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